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29)	봉헌 (220)	성체 (500)	파견 (62)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사제가 미사 중간 중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사제를 향해 간단한 목례로 인사할 수는 있으나 허리를 굽혀하는 깊은 절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말로만 주고받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때에도 허리를 굽히며 예를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도신경을 바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에서는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해야 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0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2/3	이 미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2/1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4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45	\$	\$67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9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2/23	황 가롤로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3/2	손 아놀드/ 손 쟈마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2월 11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하늘 세실리아 | 배우-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가장 감사드리고 여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故 김지영 마리아 막달레나 선생님입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작품으로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당에 다니지 않고 냉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만난 김지영 선생님은 저에게 하느님에 대해 체험하고 느끼셨던 것을 많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상태를 눈치채시고 일부러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어주시고 조언과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저는 성당에 다시 나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때의 저는 힘든 일과 오랜 냉담으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선생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저와 함께 미사에 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성당에 가기로 약속한 날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선생님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일마다 우리는 명동성당에서 만나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 후에는 오랜만에 고백성사도 보고, 선생님께서 성물도 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고 또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기도’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뽀뽀한 촬영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가지 못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자연스레 눈을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침기도는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눈을 뜨자마자 누워서 바로 성호를 긋고 하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어느 때는 조금 길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침기도를 하게 해주신 김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후배에게 신앙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신앙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보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고, 힘들 때 연락드릴 수는 없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지금 하느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느님과 함께 잘 계시죠? 가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응원해주세요.”